



REPORT

헬스케어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

2017. 7

1. 헬스케어 스타트업 동향

- 헬스케어 산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관리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줄 유망 창업분야로 손꼽히고 있음
 - 특히,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, BT를 비롯하여 ICT, NT 등 새로운 기술과의 융·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음
 - 이러한 변화는 민간의 예비창업자에게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, 벤처투자자들에게 창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투자 확대에 이어지고 있음
- 미국을 비롯한 윌버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‘디지털 헬스’ 부문을 중심으로 창업 붐을 주도하고 있음

<헬스케어 관련 창업 기업들>



자료: VENTURE SCANNER¹⁾

2. 헬스케어 스타트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

- 미국의 일반 헬스케어 부문 창업은 웨어러블 기기, 모바일 앱 등 주로 ICT 융합 기반 디지털 헬스 부문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
 - 이는 생활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개인 스스로 생체정보를 비롯한 자신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고 자신이 소비하는 서비스와 제품도 풍부한 정보를 토대로 직접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함
 - 이에 따라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·관리하는 웨어러블 기기, 의료 관련 모바일상담 서비스, 의료기관 및 약국 관련 정보 제공서비스,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서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

<미국 헬스케어 부문 스타트업 사례>

구분	기업명	설명
유전체 분석	23andMe	- 개인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질병에 대한 유전적 위험을 알려주는 웹기반의 개인 게놈서비스 제공
	Miinome	- 개인 유전자 분석정보를 토대로 유전정보 거래 플랫폼 구축
웨어러블 기기	Basis/Fitbit/Misfit/Oxitone Medical	- 생체정보 계측 피트니스 트래커와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- 모바일 플랫폼
	Lumo	-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자세교정 센서개발
모바일 앱	Castlight Health	- 중소 병의원의 의료비용 및 진료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- 클라우드 구축 및 정보 제공 서비스
	Health Tap	- 스마트폰을 통해 일반인이 올리는 의료관련 질문에 의사가 직접 답하는 모바일 플랫폼
IoT 활용	Omada Health/Retrofit	- 개인맞춤형 체중감량 온라인 프로그램(IoT 적용 디지털 체중계, 피트니스 크래커 등 활용)
	MedMider/Vitality	- 약 먹는 시간 등을 알려주는 스마트 알약 개발
기타	GoHealth	- 소비자가 직접 의료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포털 서비스 제공
	Best Docto	- 전세계 3천만명이 넘는 회원을 대상으로 수준급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B2B 서비스 운영

자료: 헬스케어 산업의 창업 동향과 활성화 방안

1) <https://venturescannerinsights.wordpress.com/category/health-technology/page/2/>

- 국내에서는 국내 헬스케어 부문 창업 수요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키고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 특화된 지원정책이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은 거의 부재한 실정임
 - 헬스케어 분야는 임상적인 아이디어의 발굴 및 평가, 기술사업화 과정상 병원과의 연계 및 정부 인허가 규제 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모두 포괄하는 창업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함
-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 헬스케어 창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, 헬스케어 분야 창업률은 '08년 7.4%에서 '09년 9.1%로 상승하였으나, '10년 9.2%의 최고치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'12년 7.3%를 기록

<국내 헬스케어 분야(제약·의료기기 한정) 창업 추이>



자료: 한국보건산업진흥원(2014)

□ 헬스케어 창업 활성화 방안

- 국내 헬스케어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 적용에 있음
 - IT헬스를 중심으로 혁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는 새로운 규제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의료서비스·의료기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
 - 특히 디지털 헬스 부문의 경우 창의적 아이디어로 손쉽게 창업이 가능한 ‘가벼운 창업’의 대표적인 분야로 손꼽히며 미국에서 창업이 크게 활성화되었으나, 국내에서는 기존 의료기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창업과 투자가 저조함
- 창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규제의 적용과 헬스케어 분야 특화 창업지원체계, ‘헬스케어 스타트업 플랫폼’ 구축이 필요



(주)에이치앤컨설팅

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96, 구산빌딩 2층

T: 02-561-0025, F: 02-561-0026

담당: 조인영 이사

CONTACT: Help@hnconsulting.co.kr